

전북 현안 해결 與 지휘부 집중 설득

김관영 도지사, 국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만나 대광법 등 통과 · 새만금 농업용수 총사업비 일괄 승인 요청



20일 국회를 찾은 김관영 도지사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장을 만나 장기 표류중인 대광법, 국립의전원법과 새만금 농업용수 총사업비 일괄 승인 등 도정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도정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 지휘부 등을 대상으로 집중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1일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직접 면담한 데 이어 20일에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을 만나 장기 표류중인 대광법, 국립의전원법과 새만금 농업용수 총사업비 일괄 승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먼저, 현행법은 광역시가 있는 대도시권만 한정해 광역교통시설을 지원하고 있지만, 울산권·광주권과 비슷한 광역교통 통행량을 가진 전주는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한, 5년 이상 담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지역의 현안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의대정원 확대에는 별개로 폐교된 전남대학교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골자로 한 국립의전원법이 국회에서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2021년 12월 새만금위원회에서 금강호 내 용수를 새만금 농업생명용수에 공급하는 '2026년 용수공급계획'을 결정한 만큼, 2025년 농생명용수 조성공사 완료에 맞춰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시설 총사업비 일괄 승인과 적정 예산이 배정되도록 촉구했다.

한편 김 지사를 비롯한 도 지휘부는 5월 초 전북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2024년 국가예산 확보 방안 모색과 함께 현안 법안, 공모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적극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전 총리,尹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시사에

“이런 잘못, 어디까지 감당하나”

SNS서 “尹 로이터 회견, 큰 불만 야기 국정은 정교하고, 외교는 더 정교해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사에 언급을 두고 “이런 잘못을 한국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로이터 회견이 큰 불만을 야기했다”며 “국정은 정교하고 외교는 더 정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구나 지금의 국제 정세는 한국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 정부”라고 했다.

그는 우리에게 네 가지 지정학적 수명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동맹국가의 수명을 중시한다”고 했다.

이어 “동맹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며 “다른 요구도 수용하면서 동맹의 길을 가야 한다.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한국은 분단국가라 평화는 절대로 필요하다”며 “평화가 깨지면 모든 게 무의미해진다”고 말했다.

또 한미 동맹을 언급하고 “동맹으로서 신뢰를 유지하고, 공유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동맹은 상호 인정과 존중을 전제로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은 반도국가”라며 “인접한 대륙국가 중국 러시아와도 건설적 관계를 유지해야 적대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통상국가”라며 “세계 200개국과 무역으로 먹고 살고 어느 나라와도 잘 지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네 가지宿命적 요구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며 “어느 하나라도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민주 차기 원내사령탑 선거 4과전

범친명 3대 비명 1구도

차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는 3선인 박광은·박범계·홍익표 의원과 재선인 김두관 의원의 4과전으로 확정됐다.

당초 예상과 달리 친이재명(친명)계 색이 짙은 박범계 의원이 돌연 출마를 선언하고, 대표적인 비이재명(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포기를 선언하면서 남은 기간 선거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김두관·박범계·홍익표 의원 등 범친명계 후보 3명과 비명계 후보인 박광은 후보 1명 간 4과전 구도로 흘러갈 전망이다.

그간 출마 의지를 보여왔던 이 의원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이 민심

의 균형 잡힌 길을 갈 수 있도록 맡을 남김 사람이 필요하다”며 “결론은 저의 원내대표 도전보다는 민주당의 길(비명계 의원 주축 모임)의 역할 강화와 소신 있는 목소리가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 섣불리 후보로 뛰어들지 않겠다고 밝힌 이 의원은 “연출이 필요”라는 말에 대해 “당원들이 나를 지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비명계 후보 단일화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민주당 소속 한 재선 의원은 “이원욱 의원이 후보 등록까지는 할 줄 알았는데 불렀다”며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당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결국 본인의 정치를 계속하기 위한 문제가 결부돼있는 결정이 아니었겠다”라고 평가했다.

박광은 의원은 후보자 등록 전부터 홍 의원과 함께 2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기도 했다.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

아쉽게 탈락한 박광은 의원이 일찌감치 재도전을 결정하고, 동료 의원들과 꾸준한 스친임을 유지해 온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비명계를 아우르는 동시에 친문재인계와 친이낙연계의 표를 흡수할 수 있다는 감점도 있다. 차기 원내대표에게는 친명과 비명으로 나뉜 당을 통합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진다. 점에서 비교적 계파색이 짙은 박광은 의원이 주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범친명계 표심의 경우 박범계 의원의 감각 출마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간 범친명계 후보로 불려 온 홍 의원의 입지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치러질 예정이며, 전날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됐다.

/뉴시스

“전북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 고창군 선정”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0일 (제)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3년 전북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공모에 고창군이 선정돼 총사업비 4.2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을 통해 5월부터 11월까지 전통 관공리와 디지털 문화기술을 융합한 콘텐츠를 개발 후 관공리 XR실감콘텐츠 체험전시관이 신재호 선생의 고택이 있는 신재효관공리공원 내에 구축된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1월부터 고창군 관계자들과 주관기업과 유치 전략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왔으며, 전북도 및 전북콘텐진흥에도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시의회 상임위 현장의정활동 나서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제400회 임시회 기간 상임위원회 별로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 기간인 18~20일 3개 위원회에서 각각 현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펼쳤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선진 의원)는 20일 내달 착공하는 전주역사 개선사업 사업 부지를 방문했다.

현 전지역은 1981년 건립돼 주차대수나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국비 300억 원 등 총 4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5년까지 지하층~지상층 규모로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위원회(위원장 정삼길 의원)는 지난 19일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를 찾았다.

복합문화센터는 국비 75억 원 등 총 167억 원을 들여 지하층~지상층 규모로 건설된 편의 시설로 내달 3월 개관을 앞두고 임시 운영 중에 있다.

같은 날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



남숙 의원은) 송천동 전주 환경사업소를 찾아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전주 환경사업소는 하루 34만㎡의 하수를 처리하는 처리시설이다.

현장 점검을 마친 각 상임위 위원장들은 “현장을 찾아 실태를 살펴보면 개선 사항이 필요한 경우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현장을 더 꼼꼼히 살피고 더 나은 방향을 찾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아람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고창군

2023년도 여행은 풍요롭고 찬란한 고창에서

제20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

2023. 4. 15.(토) ~ 5. 7.(일) 23일간
고창군 공음면 학원농장 일원



풍요롭게 찬란하게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